

제8차 한-호주 전략대화 개최

- 인태지역 핵심 파트너인 호주와 4년 만의 전략대화 개최
- 가치 공유국간 양국관계, 인태전략, 국방·방산, 지역·다자 협력 등 강화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4.16(화) 오전 외교부에서 엘리 로슨(Elly Lawson) 호주 외교통상부 전략기획조정 차관보와 제8차 한-호주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인태전략, △국방·방산,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다자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 한-호주는 2012년부터 정책협의회와 정치군사협의회를 통합하여 전략대화 개최 중
 - (개최현황) ▲제1차(12.7월, 서울), ▲제2차(14.9월, 캔버라), ▲제3차(15.8월, 서울), ▲제4차(17.4월, 캔버라), ▲제5차(18.7월, 캔버라), ▲제6차(19.10월, 서울), ▲제7차(20.11월, 화상)

양측은 역내 핵심 유사 입장국인 한-호주 양국이 지난해 G20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 및 올해 초 한-호주 외교장관통화 등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양국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발전시켜 오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측은 한국과 호주 양국이 인태지역에 대해 유사한 시각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갖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앞으로도 양국이 추진 중인 인태전략이 서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차관보는 호주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우방국이자 민주주의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이며, 작년 말 우리 기업의 호주 차세대보병전투차량 사업 계약 등 국방·방산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이에 대해 로슨 차관보도 상기 사업이 양국 국방·방산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하였다.

양측은 앞으로도 인태전략 추진 과정에서 태도국 및 ASEAN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사이버 안보·개발협력·기후변화 대응 등 제반 분야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양측은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러북 군사협력 등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이번 전략대화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개최 예정인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도 내실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붙임 : 행사 사진. 끝.

담당 부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아태2과	책임자	과 장	김기현 (02-2100-7374)
		담당자	외무사무관	임미연 (02-2100-7378)